

한전공대 학교 법인 설립 허가

2022년 3월 개교 청신호 켜져...최종 허가

캠퍼스 착공·총장 인성 등 후속 절차 '속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한전공대 설립이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통해 2022년 3월 개교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3일 나주시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코로나 19 여파로 1주 연기된 심사위원회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로 진행,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을 최종 허가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던 학교 법인 설립은 3차례 보류·연기되는 등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106일 만에 큰 산을 넘었다.

지난 해 12월 20일 열린 1차 심사에서 심사위는 한전이 제출한 대학설립 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구체성 결여를 지적하며 '계속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올해 1월 31일 2차 심사에서도 동일한 이유를 들었고 다음달 27일로 심사위 개최를 연기했다가 교육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재차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다.

심사위는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 이상 찬성을 통해 법인 설립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인 설립 허가를 따낸 한전은 캠퍼스 착공과 총장 인선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총장 인선, 이사진 구성, 교원 선발과 더불어 지난 달 마감된 한전공대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주시도 이에 발맞춰 전라남도와 함께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해 12월 19일자로 한전공대 대학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캠퍼스 착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앞서 완료했다.

도와 시는 2022년부터 10년간 각각 100억원씩 총 2천억원을 한전공대 운영비로 지원한다.

특히 세계 에너지 특화 한전공대 핵심시설인 국가 대형연구시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유치 우위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한전공대 캠퍼스 가상 이미지.

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전공대 법인설립 허가로 2022년 3월 개교까지 한걸음 더 내딛게 됐다"며 "국가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관이자 중심점이 될 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한전공대 설립은 단순히 대학 하나만을 만드는 것이 아닌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모여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했다. 한전공대는 나주 혁신도시 부영 CC부지 120만㎡(캠퍼스40만㎡, 클러스터40만㎡, 대형연구시설 40만㎡)에 총 6천200억원(추산비용)을 투입해 2022년 3월까지 조성된다.

오는 2040년 20년 내 국내 최고, 2050년 30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대학이 목표다. 학생 수는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1천명 규모로 교수진은 100명을 기준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적용할 방침이다.

순천,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서비스 시행

순천 기적의도서관에서는 4월 중 영·유아들이 책과 친해지고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서비스'를 진행한다.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 장기화와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꾸러미 수령 대상자 중 17개월과 18개월(2020년 3월 기준)이 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꾸러미를 배부한다.

꾸러미 구성은 그림책 2권과 가방, 육아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배부 방법을 2018년 10월, 11월 출생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수령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택배서비스를 통해 발송된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그림책을 통해 아기와 부모가 마음을 나누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아기가 생애 초기부터 책과 가까이 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책과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독서운동이다.

순천시에서는 2004년부터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순천 지역의 영·유아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오고 있다.

꾸러미 택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기적의도서관(☎061-749-89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담양장학회, 2020학년도 장학생 선발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비 25억9천1백만원 지원 확정



(재)담양장학회는 최근 제58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담양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다양한 교육환경 마련과 명품 인문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2020년도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올해는 담양지명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조성된 미래 천년장학금의 수혜자 2명을 포함해 담양장학생 63명, 등불장학생 4명, 임흥균등불장학생 2명, 최두호장학생 14명, 두봉장학생 3명, 허

영호장학생 2명 등 총 90명 규모로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재학여부와 한국장학재단 등 타 장학금 중복 지원 검토 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회에 걸쳐 신원미상으로 기탁된 등불장학금의 기탁자가 금성면에 거주하는 임흥균으로 알려진 후 기존 등불장학금과 임흥균등불장학금의 통합관리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다는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해 임흥균등불장학금으로 통합 운영안이 의결되었으며, 통합에 따른 장학금 운영은 2021년 장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8개교를 대상으로 한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도 확정했다. 지원규모는 총 4개 분야 25억9천1백만원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광, 방사광 가속기 유치 지지 운동 나서

영광군이 지난 1일부터 방사광 가속기 전남 유치를 위한 전남도민 1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나섰다.

특히,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 및 범시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는 20일까지 이·동장의 협조를 받아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들이 손쉽게 서명운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영광군청 채널에 실시간 서명운동 페이지를 안내하고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투표소에 서명부를 비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방사광 가속기가 전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곡성군, 소상공인 반값 상하수도 요금 시행

곡성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업종이 영업용, 업무용, 육탕용인 경우가 해당된다.

감면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단 가정용, 관공서, 공공기관,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곡성군은 약 1,000개소의 소상공 업체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고흥군, 코로나19 피해 농가 지원 나서

고흥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축시장 개장이 무기한 연기 되는 상황에 출하를 하지 못하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우 출하 유동이 제한되고 있는 축산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축산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군에서는 출하 대상 송아지가 월 평균 5포 내의 사료를 급여하거나 가축시장 무기한 연장으로 출하를 못하는 대상축에 대하여 군비 2천3백만원을 두당 2포(2만3천원)로 1천두에 한하여 긴급지원 한다고 밝혀 축산농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고흥군, 고흥축협, 고흥군 한우협회와 긴급 협의하여 출하시기가 임박하였음에도 출하를 못하는 한우에 대하여는 생축거래 전

담센터를 운영하여 긴급하게 출하 유도를 함으로써 경영자금이 필요한 축산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고흥군, 축협, 한우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고흥축협은 지난 3월분 사료 이용농가 551호의 7억8천1백만원에 대한 이자 중 일부는 이자를 감액하고, 고흥 군민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자 마스크 5천매(1천2백50만원) 상당을 고흥군에 기부하는 등 축산 관계기관과 행정의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19로 지역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운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평일 밤 한
일 상 속
남다른 여행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

기적의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